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0년 5월 15일(금) ..(음력 4월 23일).. Пятница 15 мая 2020г. № 19(11688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올해는 대조국 전쟁 대승 75주년이다. 5월 9일 오전 11시 슬라와(영예)광장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 주 및 시 정부·두마 관계자, 68군단 병사 등이 성화에 헌화하고 대조국전쟁 전사자에 묵념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단계적으로 격리 체제에서 벗어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유급 휴무, 주민 자발적 자가격리 체제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했다. 5월 12일부터 사할린 주내에서는 어린이와 함께 산책을 할 수 있고, 일부 스포츠기관에서 운동 수업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별도의 출입구를 갖춘 매점들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의류 가게와 비디오 등 전자제품 매점, 보석판매점 및 신발 수리점 등이 있다.

또한 12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은 사할린 주내 7개 구역(스미르니흐, 홀스크, 네웰스크, 토마리, 파카로브, 쿠릴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에는 예전처럼(팬데믹 전) 유치원들이 문을 열고 일반학교 11학년생들이 학교 내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사할린주지사령에 왈레리 리마렌코가 서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로스포트레나드조르)의 요구에 따라 수업을 시작한 학교 내에서 안전대책이 강화되었다. 수업시간에는 최대 15명이 출석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소독과 환기를 보다 더 자주 하고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이 길어졌다.

야외 및 실내 운동 수업을 시작한 스포츠 기관들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실내 면적 50평방미터 이하에 한 번에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고, 100평방미터 이하에 1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200평방미터 이하에 2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200평방미터 이상이어도 3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야외의 넓은 공터에서는 동시 50명까지의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내 방역을 위해서 소독제 배치도 의무화한다.

레스토랑, 카페, 식당, 바 등 외식업체(포장 및 배달, 사내

식당 운영, 호텔 룸서비스 예외)들, 유흥시설 등은 영업 일시 중단 기간을 5월 31일 까지 연장한 결로 전해졌다.

"우리 사할린주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률 증가 속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는 사할린주를 찾아온 시민들에 대한 다단계 통제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은 2주 동안 격리되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차례 검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폐를 촬영한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사할린주는 새로운 통과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할린주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할린 거주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할린 거주등록증이 없는 경우, 이들은 디지털 통과증(패스)을 받아야만 사할린을 방문할 수 있다. 사할린주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자는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할린에 근로자를 초대한 회사에 대한 주소와 세부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한편, 고용주도 근로자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디지털 통과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할린 주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서류작업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할 계획이다.

디지털 통과증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은 3만루블리, 법인(회사, 업체, 기관 등)은 최대 30만 루블리의 벌금을 징수 받는다.

사할린 지역의 격리형태 철수는 점진적으로 한다. 주내 주민들이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방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한편 5월 13일 현재 사할린주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46명, 그중 25명이 완치되고, 21명은 치료중이다. 사망사례는 없다.

단신

푸틴대통령, 휴무 조치 해제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1일(월) 있었던 정기 정부 회의에서 3월말부터 전국에서 이어진 유급 휴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체 유급 휴무, 주민 자가격리 등의 강력한 제한 조치를 통해 감염증의 폭발적 확산을 통제하는데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5월 12일(화)부터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역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별 상황 분석과 의사들의 권고를 고려해 주지사등 지방정부 지도부가 개별적으로 제재를 보충하거나 완화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경제 활동 지원, 사회적 지원, 코로나19 방역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고리 유브첸코, 사할린주 국경수비대 관리국장으로 임명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령으로 러시아 연방 보안청 사할린주 국경수비대 관리국장으로 이고리 유브첸코(1968년생)가 부임했다. 사할린에 부임하기 전 이고리 유브첸코는 인구세제야 공화국 국경수비대 국장(2016년부터)을 역임했다.

5월 12일(화) 신임 사할린국경수비대 국장은 주정부를 방문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만났다.

양측은 국경을 지키는데, 밀렵 및 불법 해양생물포획에 대한 협력 문제와 국경수비대원들과 이들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1세 동포에 식품세트 전달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5월 14일부터 주내 동포 1세 어르신들에게 식품세트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주한인협회에서 총 531개 식품세트를 마련했다. 이 세트는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9일 전승일 기념으로, 그리고 현재 자가격리 생활을 하는 노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한다.



"5월의 명절도 축하드리고 그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외출도 못하시고 잘 참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박순옥 회장이 전했다.

이 선물세트는 주로 한국산 식품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는 된장, 간장, 라면, 부침가루 등이 있다.

지난 14일 첫 식품세트 31개를 전달하기 위해 박순옥 회장과 주한인협회의 청년부 회원들이 코르사코브를 방문했다. 앞으로 선물세트는 한인들이 사는 모든 지방에 전달될 것이다.

<p>새고려신문</p>	<h3>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h3>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6개월 구독료는 522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사 편집부)</p>	
--------------	---	--

5월 18일은 국제 박물관의 날

1980년대에 사할린 한인 민족학 연구를 시작해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소장품 관리자인 김영희 씨

김영희 씨(1956년생, 이리나 보리소브나)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자(보관장)이다. 어릴때부터 아버지와 오빠 덕에 독서를 무척 좋아하고 즐겼던 이리나는 미래에 문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 극동 국립종합대학교(블라디보스토크, 현 극동연방대학교) 노어 및 러시아문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아르세니예브 연해주 향토박물관에 취직하여 박물관들의 개관에 관련한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지호오케안스카 마을(현 포킨시)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군사 영에 박물관을 만든 것이 자신의 삶에서 잘 한 일 중의 하나라고 회고한다.

김영희 씨가 대학을 졸업한 후 사할린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유는, 대학 시절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동포와 결혼한 것이었다. 1986년에 이리나는 남편을 설득해 가족과 함께 사할린에서 살려고 돌아왔다. 박물관 업무를 잘 아는 그는 주향토박물관에 취직했다. 그 당시 박물관 관장인 워트르 라티셰브는 아주 기뻐했다고 한다. 그가 오래전부터 생각해

던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를 할 사람이 드디어 생겼다고 생각해서다. 라티셰브 관장은 이 연구는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그리고 동포가 하는게 더욱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리나는 박물관의 소련역사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동포들의 사할린에서의 삶을 연구하는게 재미있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그는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우글레고르스크·마카로브·토마리 등의 구역에 출장을 많이 다녔다.

김영희 씨는 그가 취재한 1세 어르신들의 모습, 특히 눈을 지금도 잘 기억한다.

"우리 동포어르신들이 처음엔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연구한다는 말에 저를 보고 '이 사람이 흑시영주귀국 희망자 명단을 작성하려고 찾아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자료와 증거도 수집했고 이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찬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김 씨가 말하였다.

그가 수집한 자료들은 주향토박물관에서 열린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첫 전시회의 출발점이 되었다. 1988-1989년 당시에는 이 사할린 한인 전시회가 첫 사례였다. 전시 개관을 일본과 한국 언론들도 취재했다. 또한 <소련 박물관> 전문잡지는 이 전시회를 디아스포라의 유일한 민족학 전시회로 발표했다.

계속 사할린한인에 대해 연구하려고 한 김영희 씨는 소련 고려인 민족학 연구로 잘 알려진 로자 드 자르겔 가시노와(모스크바) 박사를 찾아가 박사과정 지도교수를 부탁한 바도 있다. 그러나 사할린 박물관에서 5년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박물관을 그만두게 되었다. 처음엔 1년만 휴무하기로 박물관 관장과 얘기가 됐는데

잘 아는 바와 같이 경제가 무너진 90년대, 개인 사정 때문에 김영희 씨는 20년이 지나서야 박물관으로 돌아왔다.

"처음엔 개인적으로라도 사할린한인 연구를 할 욕심이 있었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할 사람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도 남편과 개인사업을 하느라고 바빠져서 연구를 포기했죠. 박물관 동료들과 가끔 연락을 했지만 90년대에 박물관 형편도 많이 안 좋았고 시간이 지나 갈수록 박물관에 돌아갈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 동안 학교에서 문학과 세계 예술문화를 가르쳐 준 적도 있었거든요"라고 김영희 씨가 이야기를 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물관

동료였던 키라 체르파코와(소장품 관리자)가 도움을 요청해 김영희 씨가 박물관에 복귀해 1년동안 일할 것을 약속했다. 소장품 관리자로 그는 민족학 소장 업무를 맡았다. 소장품 상태가 좋지 않아서 관리자로써 정말로 할 일이 많았다. 8년이 흐른 지금까지 김영희 씨는 소장품 관리자로써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다.

박물관 측에서는 김영희 씨가 소장품 관리이지만 사할린 한인 관련 일은 그가 계속 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는 "한인 연구와 관련해 빛진 것 같아서 2018년에 키라 체르파코와와 함께 <사할린한인. 사할린주향토박물관의 소장 컬렉션 카탈로그>이란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것으로 빛을 좀 갚은 기분입니다."라고 했다.

작년 5월에 그는 한국 한림대와 사할린국립대가 공동으로 하는 제7회 학술회(주제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할린 한인에 대한 평화와 연대>)에서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 소장된 사할린 한인들의 생활용품과 전통문화용품 연구>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사할린향토박물관은 홋카이도대학과 함께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해오고 있다. 특히 가라후토 시대와 관련한 연구가 많다. 3년간 일본 연구자들이 향토박물관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누족이 사용하는 우루시(옷칠) 그릇에 대해 연구해 왔다.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학술회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컨퍼런스에 향토박물관 관장과 함께 김영희 보관장도 초대되었다. 이리나의 발표 주제는 사할린 아이누 옷칠그릇 역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감염 위험으로 휴무중이더라도 김영희 씨는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작업도 하고, 좋아하는 독서도 즐기고, 꽃과 사랑에 빠져 집 앞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여성이지만 그는 남자 못지 않게 정치에도 관심이 많다. 이는 젊었을 때부터다. 사람의 특성 중에서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는 그에게는 인간관계가 우선이다. 그리고 딸이 두 자녀(아들과 딸) 엄마로서, 세 손자녀 할머니로서 행복하다 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전승절을 위한 온라인 선물

체호브센터는 시음악 리뷰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의 초연을 준비했다. 상영은 5월 10일 유튜브 채널에서 했다. 이 동영상은 연극, 영화, 문학, 음악 등 네 가지 종류의 예술을 합성한 것이다.

체호브센터 배우들이 이 동영상을 사할린주 기술 스포츠센터, 제68군단과 함께 준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승 75주년을 맞아 주문화고문서보관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참전용사들을 위한 전통 갈라 콘서트를 개최할 수 없었는데 사할린극장 배우들이 참전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준비하였다. 체호브센터는 이미 무대에 올렸던 <쫄리킨>(감독 옹게니 지민)을 바탕으로 하여 푸시스티 비행장, 파르티잔 마을, 숲, 호수 등을 무대로 하여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은 9일간 계속되었다.

"이 땅의 삶을 위하여" 뮤지컬 리뷰의 감독은 체호브센터 수석예술감독 알렉산드르 아게예브이다.

**"Ради жизни на земле" —
онлайн-подарок ко Дню Победы**

Чехов-центр подготовил премьеру музыкально-поэтического ревью "Ради жизни на земле". Она состоялась 10 мая на ютуб-канале. Это синтез четырех видов искусства – театра, кино, литературы и музыки.

Премьера подготовлена артистами совместно с центром техниче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68-м армейским корпусом.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 приурочен к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В этом году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для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провести

оказалось невозможно, но оставить их без подарка, не поклониться им в этот день и не отдать дань памяти погибшим арт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не могли. Взяв за основу свой спектакль "Теркин" (режиссер Евгений Зимин), Чехов-центр переместился со сцены на пленэр: на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в партизанскую деревню с ее траншеями и блиндажами, в лес, на озеро. Съемки продолжались девять дней.

Режиссером музыкального ревью "Ради жизни на земле" выступил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Чехов-центра Александр Агеев.

Сахалинцы высоко оценили этот фильм, отметили искренность артистов.

사할린주, 곧 시마 낚시 시작

시마 (연송어 종류) 낚시가 5월 21일 사할린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한 결정은 민물고기 어획조정 위원회가 내렸다. 위원회는 주민들이 류토가, 탐보브카와 우룸 강에서 시마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낚시철 마감은 6월 20일에서 30일까지라고 했다.

어류의 실제적 접근에 따라 시마 낚시 기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 낚시 조직 (낚시꾼들에게 라이선스 제공 회사) 회사들을 정했다. 사할린 "클라브릭브워드"의 사할린지점은 우룸 강(교량과 1.5km상류), 탐보브카 강(하구로부터 2km) 떨어진 두 지역에서 낚시꾼들을 기다린다. "올림픽"회사는 류토가 강(교량 지역에서, 상류로 스차스찌예강까지)에서 낚시꾼들을 기다린다.

위원회는 조직자들에게 시마 총 4.6 여톤을 잡을 수 있는 쿼터를 제공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коро откроют любительский лов сими

Любительский промысел сими начн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21 мая. Решение об этом приняла областная комиссия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бычи анадромных видов рыб. Комиссия определила для населения места для добычи на реках Лютога, Тамбовка и Урюм – пути-на там завершится с 20 по 30 июня.

Сроки добычи могут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еальных подходов рыбы. Комиссия определи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активного вида отдыха для населения. Так, сахалинск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Главрыбвода» ждет любителей на двух участках: на реке Урюм, от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и на 1,5 километра вверх по течению, а также на реке Тамбовка – на два километра вверх по течению от устья. Компания «Олимп» примет любителей рыбалки на Лютоге, в районе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вверх по течению до притока реки Счастье.

Организаторам любительского промысла выделены квоты — разрешено добыть свыше 4,6 тонны сими.

홈스크의 도서관, 여행에 대한 서적 기증받아

<사할린 에너지>회사는 2010년에 시작된 "책을 선물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다. 이는 도시와 시골 도서관의 최신 도서 보급을 목표로 한다. 매년 서적 세트는 정한 주제에 따라 구성한다. 올해의 주제는 "위대한 여행"이다.

기증도서 세트는 유리 니콜라예브 명칭 홈스크 중앙구역 도서관에도 전달되었다. 이 세트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유리 리산스키의 <"네바"술람함을 타고 세계일주>, 그리고 중앙아시아 연구자인 그리고리 그롬-그르퀴마일로와 미하일 베브쵸브, 유명 해양학자 가브리일 사피체프, 알타이·시베리아·중국·티베트·몽골 연구 탐험에 참여한 포타닌 부부, 몽골·중국·동부 티베트에 6차례 대탐험을 한 러시아 여행가이자 탐험가인 포르트 코즐로브에 대한 서적으로 구성되었다.

출판물들은 희귀한 예술적, 다큐멘터리적 자료들로 꾸며졌다. 또한 뛰어난 인쇄 품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서들은 큰 선물을 준 <사할린 에너지>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 새로운 도서들이 책장에서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8면에 계속)

우리는 누구도, 무엇도 잊지 말아야 한다



5월 9일, 전 국민이 러시아의 가장 애국적인 명절 - 전승일을 기념했다. 올해 대조국전쟁 전승 75주년이 되는 해라 이 기념일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일을 작년 부터 대대적으로 해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집회, 퍼레이드, <불멸의 연대>행진 등 많은 대중 기념행사들이 취소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이날 오전 11시 슬라와(영예) 광장에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 주 및 시 정부·두마 관계자, 68군단 병사 등이 성화에 헌화하고 대조국전쟁 전사자에 묵념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12시에는 전투기 2대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상공을 비행했다.

이날 대조국 전쟁 참전 용사들은 영예광장을 찾지 못했지만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는 모든 34명의 참전자들의 자택을 정부, 의회 등 대표, 자원봉사자, 가수, 군인 등이 방문해 그들을 축하했다.

드제르진스키 거리의 한 주택 마당에서 예카테리나 밀로셰르도와 참전자를 위한 축하 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밀로셰르도와 베테랑을 제68군단 드미트리 글루코코브 사령관이 직접 축하하고 어르신을 위해 <라두가>문화회관(노위알렉산드롭스크)의 아티스트들이 <승리의 날>곡을 불러주었다. 또한 군사들의 미니퍼레이드도 단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사할린 주민들은 같은 시간에 함께 <승리의 날> 노래도 부르고 전사자를 추모하여 촛불도 켜다. 사람들은 이 날 대조국전쟁 전승일을 기념하면서 '누구도, 무엇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취재: 이예식 기자)



한국음악에 관한 온라인 경시대회, 121명 참가

사할린국립대·사할린주한인협회 공동 주최 연례 경시대회 결과 발표

이미 홍보된 바와 같이 지난 4월 30일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비라)에서 한국 관련 경시대회를 진행하였다. 해마다 전례적으로 개최되는 이 경시대회는 본 대학과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주최로 조직된다. 올해 경시대회 주제는 <시대교차점에서의 한국 음악문화>였다. 이번 경시대회는 <세대 간의 연결, 전통의 이어줌>이라는 제목으로 사할린 주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측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회장 코르네예와 인나)가 맡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산으로 인해 이번에는 경시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신청과 대회 진행은 사할린국립대의 edu.sakhgu.ru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다. 4월 30일 하루 중일 진행된 경시대회에서 참가자들은 60분간 30개 질문에 답해야 했다. 질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 부분은 전통 음악(전통 악기, 사물놀이, 농악, 판소리, <아리랑>민요)에 관한 질문이었고 두번째 부분은 현대 K-pop 문화에 대한 질문, 그리고 3번째 부분은 <러시아와 한국간 교류에서 음악 작품> 관련 질문이었다. 마지막 질문을 정한 이유는 올해는 러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양국간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꽤 어렵고 재미있는 질문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한겨레 아리랑연합회의 창설에 대한 질문, 징 악기에 대한 질문, PSY의 노래 <강남스타일>과 관련된 질문, <백학>이란 러시아 노래가 등장한 한국 드라마 등이다.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은 이번 대회에 5-11학년 학생들과 대학생까지 총 121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 아나와, 돌린스크, 우글레고

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의 여러 학교와 사할린국립대 학생들이다. 참가자 중 한국어채택학교, 사할린한국교육원이나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한국어 채택학교에 다니지 않은 학생들의 비중도 꽤 많았다고 임 엘비라 교수가 덧붙였다. 얼마전에 그룹별(5-6학년생, 7-9학년생, 10-11학년생, 대학생)로 우승자와 수상자를 선정해 이와 관련 정보는 대학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경시대회 참가자 모두가 참가증명서를, 우승자와 수상자들은 수상증서, 상장과 선물을 받게 된다.

해마다 경시대회의 일환으로 한민족 문화와 관련된 공예교실(마스터-클래스)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하기 위해 50%이상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공예세트(색칠할 수 있는 부채 등)와 BTS그룹의 사진이 들어간 자석이 전해진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학생들은 그림을 색칠해 완성작을 주최측에 보내면 된다. 가을에는 이 완성작과 학생들에 대한 사진프레젠테이션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부 공예세트는 이미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사들에게 전했고 지방에는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지면을 통해 경시대회 모든 참가자, 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가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음악문화에 대해 깊은 지식을 보여주었고 수상자 점수 차이가 1-2 점 밖에 안났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계속하는 학생들은 내년 경시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하고 올해 학교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우리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에 입학할 것을 기원합니다. 경시대회 수상자는 대학 입학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임 엘비라 학장이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배순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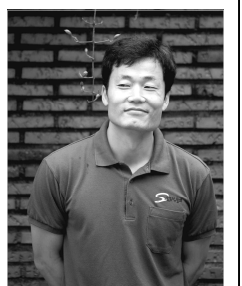
사할린 학교 등에 의료용 마스크 지원

11학년생들의 수업이 재개된 스미르니흐, 홈스크, 네웰스크, 마카로브, 토마리, 쿠릴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구역들의 학교들이 마스크 25만개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마스크는 주 내에서 가장 큰 수산업체 중 하나인 <기드로스트로이>가 기증했다. 이 회사는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는데 대다수는 지역사회복지센터,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자원봉사회, <아랄리아>재활센터, 대중매체 기관, 법 집행기관, 유치원 등에 전달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 버스 운영을 맡은 <트랜스포트 트나야 콤파니>에는 <기드로스트로이>업체가 20만 개의 마스크를 기증했다. 이 마스크는 버스 이용시 마스크가 없는 승객에게 제공된다.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생일이 같은 형제

나는 결혼도 하기 전부터 크리스마스에 아기를 낳고 싶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생일, 온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축하해 줄 생일이니 가장 좋은 날짜다. 고백하자면 따로 챙겨야 할 선물과 파티를 한 번에 헤치우려는 실용적인 이유도 조금은 있었다.



하지만 첫 아이는 크리스마스를 보름 정도 앞두고 세상에 나왔다. 계획이 어긋나면 목표를 수정하면 되는 법이니까 두 번째 아이 생일도 같은 날이 되면 좋겠다고 아내와 웃었다.

결국 두 번째 아이도 십이월에 태어났는데 둘 다 자연 분만임에도 생일이 같았다. 아내는 예전부터 내가 바라는 건 다 이뤄진다고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북통일이나 세계평화도 머지않았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케이크 하나에 촛불을 두 번 켜다. 생일 선물을 크리스마스랑 몰아서 해주기도 했다. 부모중심의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생일 잔치였는데 초등학교가 되니 아이들이 억울해 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구분해서 둘 다 확실하게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래도 역시 케이크는 하나씩만 샀는데 두 아이가 취향이 달라 의견 조율하기가 힘이 들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있고 짬짜면이 있듯 케이크도 반반 메뉴가 나오면 좋겠다.

지난 생일 때, 곧 중학생이 될 큰 아이가 생일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연달아 받으니 미안하다고 하나로 합치자며 웃었지만 작은 아이의 반대에 없던 일이 되었다.

어릴 적, 형과 합쳐져 은근히 넘어간 생일 때문에 한이 맺혔는지 작은 아이는 전화기를 보며 2080년까지 생일을 표시해 뒀고 받고 싶은 선물도 적어 두었다.

생일 한 번 잘못 정해준 탓에 그 때까지 꼬박 선물을 챙겨줘야 할 숙제가 생겼다. 최선을 다해 오래 살아야겠다.

광주에서 김남중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Более 120 человек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аде по музык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и



30 апреля 2020 года в Институте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рошла очередная ежегодная страноведческая олимпиада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тему: «Музык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на перекрестке эпох»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олимпиады традиционно выступили: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кафедра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 том, как прошла олимпиада, с нами поделилась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Хаммоковна Лим.

— Форма пр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ады в этом году была новой, дистанционная, на платформе: edu.sakhgu.ru. География участников была широкая: школ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 Корсакова, г. Холмска, г. Анивы, г. Долинска, г. Углегорска, Красногорска. Благодаря дистанционной форме пр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ады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была всем доступна. Участников было 121 человек, школьники 5-11 классов и студенты. Было неожиданно приятно, что в числе участников было много ребят со школ, где не изучае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ребят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нтересуютс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зучают доступный им материал и показывают очень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Ребята должны были ответить на 30 вопросов в течение 60 минут.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на ответ давалась только одна попытка. Вопросы делились на три блока: традиционная музыка, современная музык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K-POP и музыка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диалоге двух стран — России и Кореи.

Последний блок вопросов был определен не случайно. В 2020 году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тмечают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а также этот год стал Годом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Мы подвели итоги,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Все участники олимпиады получат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а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 дипломы, грамоты и подарки. Подарки будут вручены чуть позже.

Ежегодно вторая часть олимпиады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проведению различных мастер классов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не изменили традиции, наборы для мастер классов подготовлены ребятам, кто набрал 50% и более правильных ответов. Их ждет творческий набор для раскрашивания (веер с традиционной тематикой по теме олимпиады и магнит с портретом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BTS). Ребята должны будут раскрасить и выслать готовую работу. Осенью планируем подготовить фотопрезентацию готовых работ с нашими героями — участниками олимпиады. Частично наборы переданы учителям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айоны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чу сказать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олимпиады, учителям и родителям з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Ребята показали очень глубокие знания в музык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Призеров разделяли буквально один-два балла. Спасибо за ваш интерес, мотивацию, преданность. Школьников, кто продолжает учиться в школе, ждем в качестве участников в следующем 2021 году. А выпускников школ 2020 приглашаем в число студентов нашего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летом 2020 года. Хочу напомнить, что грамота призера олимпиады д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К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Далёкое-близко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овесть

Ян Вон Сик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посвящается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7)

— Как может быть у людей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если уже с фронта поступают похоронки! — промолвил Михаил.

— Ну, друзья, нам пора... О встрече все-таки, девушки, подумайте, — торопливо напомнил Гена.

— А если сейчас не успеем, то давайте найдем друг друга после войны. Хорошо? — сказав, Нина вопросительно посмотрела на Гену.

— Обязательно найдем! — Гена с улыбкой подошел к Нине, взял ее за руку, крепко пожал и еще раз нежно повторил: «Обязательно найдем!»

Уже разойдясь в разные стороны, Нина и Гена вдруг враз остановились и оглянулись. Гена, приставив к губам ладони обеих рук, закричал: «До-сви-да-ния!»

В уличном шуме его голос был еле слышен, но почему-то у Нины вдруг защемило сердце... Ее губы невольно прошептали: «Прощай!» Она еще долго стояла, глядя вслед удаляющемуся Геннадию.

Николай Жуков Дороги войны. 1943 г.

Встреча на перекрестках войны

День выдался на редкость солнечный. В небе ни облачка. Вдали виднелся синий лес. Изредка слышались далекие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раскаты. На перекрестке проселочных дорог случайно сошлись летчик Геннадий Хан и пехотинец лейтенант Борис Ан. Крепко обнялись... Это было почти чудо, что из тысячи фронтовых дорог сошлись именно эти две...

— Ты давно на фронте? — наконец спросил Гена.

— Я же записался добровольцем с тобой в один день, а через неделю был зачислен в народное ополчение — и прямо на фронт. А ты как?

— Меня сначала направили в Куйбышевское авиационное училище, где я преподавал математику. А на фронт не отпустили. Тогда я обратился с просьбой к маршалу Ворошилову. И вот я здесь с осени 1941 года, — гордо произнес Геннадий.

Из-за леса мало-помалу накатился тяжелый гул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А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над головами проплыли ненавистные самолеты с крестами на крыльях.

— Пойду в батальон, — заторопился Борис.

— Частенько эти стервятники наведываются в здешние места. Думают, аэродромы бомбят, а тут построен ложный аэродром. А настоящий в надежном укрытии, — заметил Гена.

— Правда? Молодцы вы, летчики! — обрадовался Борис. — Только почему авиация пехоту и артиллерию не прикрывает от фашистских налетов? Сейчас мы больше отступаем, чем наступаем, и видим столько орудий, разбитых авиабомбами, столько сожженной техники на дорогах. Эти стервятники нам уже вот где, «по горло». А с беженцами что делают!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у один такой налет... На проходах повис неродившийся еще ребенок... Сволочи!..

— Знаем, — Гена опустил глаза. — Пока немцы сильнее в воздухе. Т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месяца у нас, считай, три раза боевой состав полка менялся. Мальчишки. Сразу после училищ... Не успевают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ак следует. Врасплох застал нас Гитлер в июне 1941-го. Аэродромы бомбили по списку... Сотни машин взлететь не успели... Ничего, выдюжим... Россия — великая страна. Кто только ни напал на нее — шведы, тевтонцы, поляки, французы...

— Что ты мне лекции читаешь, как с кафедры? Это мы знаем, но как быть сейчас? Опять отступаем. Где вы, соколы наши? Зовем, ждем, а вас нет, как в воду канули.

— А нам, думаешь, легко? Летаем на всяком старье. Поставят на кукурузник пулемет и называют «истребителем». Фанера! Как тряпка, облитая бензином, горит! Но это уже недолго. С Урала начинают поступать отличные машины — «мессеров», как уток, заваливают. Только бы побольше их... Тогда покажем «асам» Геринга.

Немного помолчав, Гена продолжал: зато у нас летчики — народ боевой! Много наших после

математ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ГУ. А неподалеку — девушки. В трех километрах от нас квартирует женский бомбардировочный полк. Может знаешь некоторых по общежитию на Стормынке? Такие тихие, скромные были. Теперь кадровикам фору дадут... Садятся на У-2, заглушают мотор и налетают ночью на немецкие аэродромы. Так бомбят, что фрицы «муттер» позвать не успевают... Окрестили их «ночными ведьмами». А ты на фронте из знакомых никого не встречал?

— Видел нескольких корейцев из Москвы. Однажды задержались на одной из переправ. Мы тогда несколько ночей не спали, отступали с боями. Немцы мост разбили. Саперы готовили понтонную переправу. А связисты восстанавливали связь. Командовал ими наш Григорий Ким. Помнишь прощальный вечер?

— Да, помню. Я тоже москвича-корейца видел. Николай Ким, до войны работал юристом в Сокольническом районе. У него жена и трое детей. Он в составе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ополченской дивизии с первого дня войны на фронте. Был весь в бинтах — его в госпиталь направили.

— Еще на какой-то станции встретил двух совсем молодых парней, — продолжал Борис, — из Казахстана, из Уш-Тобе вроде бы. Говорят, убежали от родителей. Три дня перед дверью военкомата ночевали, за офицерами бегали. Им года до призывного возраста не хватало... У них такое настроение, будто едут не на фронт, а на праздник, — добавил Борис.

— Я их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 Они радовались, что, наконец, освободились от всех пут: от родителей, от сверстников, которые задирали детей переселенцев. Я рад за них. Они хотят драться на равных со всеми за нашу советскую родину. Пусть не оставит их солдатское счастье! Только бы живыми к матерям вернулись. Молодые всегда под пули лезут, — говорит Гена.

— А ты не встречал Нину? — неожиданно спросил Борис.

— Нет, а ты видел ее, когда, где? — с нетерпением задавал вопросы Гена.

— Перед отправкой на фронт. Она в свой медсанбат торопилась. Их должны были через сутки куда-то отправлять. Успели только несколькими словами перекинуться. Она о тебе спрашивала.

— И что она сказала?

— Ты нравишься ей. Очень надеялась еще раз встретиться до отправки на фронт, но ты же сам понимаешь, какая сейчас обстановка в стране.

В полевых госпиталях

В полевом госпитале около Саратова. По узким улицам поселка угрюмо шагали отряды солдат, истомленных боями, полуголодных, из окон госпиталя раздавались стоны раненых, крики бреда. Раненый в обе ноги в боях под Куйбышевом, Борис попал в госпиталь, где совсем недавно стала работать Нина. Раны почти заживали, и лежать в палате, где разместились 20-30 раненых разной степени тяжести, становилось невыносимо. Когда он сам был сильно болен, не замечал, не слышал, как страдают и стонут тяжелобольные. Но теперь очень не хотел оставаться ни одного дня, ни одного часа в этом аду.

— Тамара Ивановна внимательно осмотрела мои раны, и, возможно, меня выпишут, — сказал Борис Нине.

— Нет. Без Ивана Петровича мы никого не выписываем. Он решает и знает каждого из вас. Ты потерял много крови, тебе надо как следует поправиться, нельзя торопиться. Лучше скажи, как у тебя дела дома, что пишут?

— Спасибо, дома все в порядке, жена работает в Казахстане, сынишка растет. Скучают, особенно сынок. Каждый день донимает мать: «Когда папа приедет?» Пока учился, в каникулы то военные сборы, то практика. А теперь война — поговорить и то не успели как следует, — сетовал Борис. Потом полушутливо спросил: «Почему сейчас врачи от тебя вышли строем, как от генерала? Чуть меня не сшибли дверью?»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ун Чжэ Ин: РК войдёт в эпоху после COVID-19 с «динамичной экономикой»

РК использует относительно быструю стабилизацию ситуации с пандемией вируса COVID-19 в качестве «поворотного пункта для повыш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жизнеспособност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воскресень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 специальном обращении к народу по случаю третьей годовщины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Обозначив задачи на оставшиеся два года работы, он отметил, что РК войдёт в эпоху после COVID-19 с «динамичной экономикой», главной движущей силой которой станут инновацио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 стартапы. При эт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средоточится на «упреждающих инвестициях» в будущее,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озда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Системой страхования занятости будут охвачены как наёмные работники, так и самозанятые.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условия для ввода в действие связи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5G, а также для сбора, накоплен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анных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национальные проекты. Будут интенсивно развиваться отрасли, связанные с медицинскими услугами, образованием и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ей. Кризис, вызванный пандемией COVID-19,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важность укрепления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напомнил Мун Чжэ Ин.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удаётся преодолеть кризис, будет преобразован в Управление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Это позволит укрепить статус данного органа и предоставить ему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Коснувшись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н предложил Пхеньяну совместно с Сеулом приступить к созданию «мир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утё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человека». Мун Чжэ Ин обещал до конца своих полномочий в качестве президента делать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превратить кризисы в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ностью посвятив себя их преодолению вместе с людьми».

Начало занятий в школах отложено ещё на неделю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учащих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К по согласованию с органам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еренесло начало занятий в старших школах с 13 на 20 мая. Как сообщ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журналистам зам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Пак Пэк Пом, начало занятий в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школах также откладыва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ересмотренным графиком, занятия в школах будут возобновляться поэтапно по 8 июня.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вило о планах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школ с 13 мая в рамках смягчения режим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связи с сокращением числа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вирусом COVID-19. Однако в начале мая уровень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начал повышаться, что вызвало озабоч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второй волны инфекции. Более 160 тыс.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одписали онлайн-петицию с просьбой перенести открытие школ для всех учащихся.

В поисках средства для лечения COVID-19 в РК тестируются 7 препаратов

В РК проходят клини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семи существующих препаратов с целью выявить, пригоден ли какой-либо из них для лечения вируса COVID-19.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пятниц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лож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испытаний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появлению лекарства от вируса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Клини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трёх вакцин также будут начаты до конца года, а надёжная вакцина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до конца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Для ускорения испыта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зволило Красному Кресту брать образцы крови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клинических испытаний. Ранее это разрешалось только определённым клиникам.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ведения исследований частными фирмами и учреждениями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лаборатории биобезопасности уровня 3 (BL3),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безопасной работы с вирусами.

В метрополитене Сеула введён масочный режим

С 13 мая в метрополитене Сеула действует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Он введён в рамках режима повседневного карантина. В случае загруженности метро как минимум на 150% пассажирам без защитных масок будет отказано в проезде. Те, кто не имеет при себе масок, могут купить одноразовые маски в 448 автоматах и 275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метрополитена. Кроме того, с июня на наиболее загруженных станциях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сотрудники, контролирующие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пассажирами, которые ожидают прибытие поезда. В часы пик метрополитен планирует пуск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езда на перегруженных второй, четвёртой и седьмой линиях. На остальных линиях будут ожидать запасные поезда на случай роста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Если загруженность превысит 170%, они будут следовать без остановки на некоторых станциях. (RKI)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остоялись акции в честь Дня Победы

В различных городах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КНДР, 9 мая состоялис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честь Дня Победы.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и ряда неизбеж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пришлось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формат проведения некоторых акций, но они прошли с большим размахом.

В Сеуле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с 2015-го, а с 2018-го она также есть и в Пусане. В этом году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з-за мер по борьбе с COVID-19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и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4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удя п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фотографиям,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в Пусане состоялся в фойе помещен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К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учащиеся школы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Ф в Сеуле провели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а также конкурс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акже активно отметили День Победы, хотя и там тоже пришлось учитывать режим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начала посол и военный атташе РФ в Пхеньяне с супругами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одного дипломата от имени коллективов российских загранучреждений возложили букеты цветов к монументу освобождения на горе Моранбон, к братским могилам наших воинов на кладбище в районе Садон и к памятнику советским летчикам, защищавшим небо Кореи в 1950-1953 годах.

В полдень по периметру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ольского городка в Центральном районе Пхеньяна прошёл марш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КНДР, "под звуки песен военных лет в едином строю прошли взрослые и дети с портретами своих родных и близких, внесших вклад в победу над фашизмом".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Чондин, что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КНДР, где находится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РФ, с утра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к монументу освобождения на сопке Рактабон и мемориалу советским воинам на холме Комальсан, где покоятся останки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 ходе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Расон, который расположен рядом с границей с Россией и где размещён офис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вмест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РасонКонТранс", также состоялись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Росси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СП "РасонКонТранс"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гендиректора компани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могиле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в Расоне, подняли флаг России 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рендуемого пирса в раджинском порту провели акцию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Кроме того, 9 мая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председа-



Посольство РФ в Пхеньяне.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РФ в Пусане.

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направил поздра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у РФ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по случаю 75-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Текст поздравления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главной газете КНДР "Нодон Синмун".

Несколькими днями ране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ами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75-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посол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передал юбилейные медали "75 лет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тем гражданам КНДР, которые были ими награждены. Среди награждённых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и два ветерана-женщины 88-й Отдельной бригад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Красной Армии Ли Ён Сук (1916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Пак Гён Сук (1921 года рождения). Медаль для лидера КНДР была передана послом РФ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Ли Сон Гвону 5 мая в ход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во Дворце съездов Мансудэ, а награды для ветеранов отдали 6 мая через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ы МИД КНДР Им Чхон Ил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Южная Корея создаст запас в 100 миллионов масок для второй волны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намерено создать запас в 100 миллионов масок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о второй волне коронавируса COVID-19, которая ожидается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Мы уже выделили средств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для создания запаса масок количеством 100 миллионов штук", — заяв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Ы Гён. Она также отметила, что в стране уже есть некоторый запас, дефицит с масками пре-

одолен, но пока власти не намерены отменять систему, которая ограничивает нормы отпуска масок в одни руки и только в определённые дни, исходя из номера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По словам Ли,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намерена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около 70 странам мира, которые попросили об этом Сеул, в том числе путем направления туда партий масок. В списке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обратились к Кореи, значатся США, страны ЕС и други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522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редлагают сохранить акции, проведенные в области в честь 75-летия Победы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активисты и волонтер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отмечают, что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объединили граждан, помогли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праздник,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героям и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авших.

В канун 9 мая и в День Побед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месте со всей страной провела целую серию тематических акций. Среди них – «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Поем двором», «Окна Победы», «Флаги России. 9 мая», «Фонарики Победы». Для ветеранов войны организовали мини-парады и концертно-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фронтальных бригад».

– Каждая акция собрала сотни участников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Здорово, чт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ассово исполнили гимн праздника – знаменитую песню Давида Тухманова и Владимира Харитонова «День Победы». Нам прислали около 350 таких роликов – из многи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и даже из Казани,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Александр Неустроев. – Все акции вызвали положительные эмоции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асто подходили люди со словам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и говорили, чт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должны стать ежегодными.

Ульяна Приходько была одним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фронтальных бригад». Ребя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ехали по 32 адресам.

– Наши выступления очень понравились ветеранам. Они благодарили нас, добрые слова слышали и от их соседей. Решили,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удем также поздравлять этих заслуженных людей. Даже уже озвучили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Совету ветеранов, – рассказала девушка.

Впервые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акция «Флаги России. 9 мая». На верхней площад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группа добровольцев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Юнармии», спор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етера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Афганистане и Чечне – растянула гигантское полотнище Знамени Победы.

– За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имвол Победы было видно практически из любой части города, – поделился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вижения «Юнармия» Дмитрий Миняев. – Из-за пандемии пришлось ограничить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Многие ребята огорчились и озвучили предложение – сделать ее ежегодной.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отмет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несмотря на отсутствие масшта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з-за угрозы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аздник получился теплым.

– Настроение создавали и солнечная погода, и то, как украшен город. Мы с семьей 9 мая сходили на площадь Славы,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Особо тронули фотографии участников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которые транслировали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 поделился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 На площадь Славы сахалинцы целый день несли цветы.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люди помнят и чтут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За ветеранов,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личн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амя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цветы к мемориалам возлагали активисты.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Цветы Победы» принял и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италий Гомилевский. Он возложил к Вечному огню цветы от имени Вячеслава Васильевича Гаврилова, который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в боях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аздника сделали так, чтобы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не нарушали режим безопасности, но смогли вспомнить погибших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отдать им дань уважения, – сказал Виталий Гомилевский.

Погибших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вспомнили во всех храм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ожественные литургии, молебны и заупокойные службы 9 мая совершены обо всех, кто погиб, защищая Отечество. В этом году традиционную акцию «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 молодежный отдел епархии провёл в храм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имвол Победы православные волонтеры раздавали прихожанам, и они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принимали ленточки. Впереди 3 сентября – 75-лети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Мы планируем, что сможем масштабно отметить этот праздник, – рассказал отец Виктор.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основные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9 мая в регионе перенесли. Часть из них прошла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режима самоизоляции и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онлайн-проектах, посвященных празднованию 75-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не покидая своего дом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ачался поэтапный выход из режима самоизоляции

С 12 ма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зрешены прогулки с детьми, возобновлены занятия в спортивных секциях, в сем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бласти открылись детские сады 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школы. Также заработали некоторые объекты торговли и сервиса, имеющие отдельный вход – магазины одежды и головных уборов, торговые точки с аудио- и видеотехникой, ювелирными изделиями и музыкаль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мастерские по ремонту обув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подпис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мп прирост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 один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по стране.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многоуровневой системе контроля за гражданами, которые прибывают на остров. Все люди, которые прилетают к нам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попадают в двухнедельную изоляцию, проходят несколько тестирований на COVID-19,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им делают компьютерную томографию легких,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етские сады возобновили работу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где не было выявлено заражен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Это Смирныховский, Холм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Макаровский, Томаринский, Курильский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районы.

В этих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за школьные парты вернутся ученики одиннадцатых классов. Однако,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школах усилены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к, в класс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до 15 человек. Учеников и педагогов обязали носить медицинские маски. Кроме того, дезинфекция и проветривание помещений производится чаще, а перемены стали длиннее.

На островах возобновляют работу спортивные секции. Тренировк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залах и на открытых площадках. Для заняти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несколько рекомендаций. К примеру, на объекте площадью до 5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е могут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ходиться более 5 человек, до 100 «квадратов» – не более 10 человек, до 200 – не более 25, свыше 200 – не более 30 человек. На больших открытых площадках смогут тренироваться до 50 спортсменов. Обязательным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соблюдение дезинфе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по обработке помещений.

Не исполнению требований гражданину грозит штраф д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юридическому лицу – оформление цифровых пропусков.

– Ко мне обращаются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 просьбой «закрыть регион». В то же время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процесс, работу важн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граничить въезд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и ввести цифровые пропуска,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гласно нововведению, теперь все, кто прибывает в область,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едъяв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регистрацию. Если таковой нет, то гражданин обязан оформить цифровой пропуск. Для этого перед отправкой в регион ему необходимо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Она будет содержать сведения об адресе и да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пригласившего работник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работодатель также должен уведомить о приглашении на работу. Страницу «Цифровой пропуск» разместят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формлять документы планируе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 неисполн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гражданину грозит штраф д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юридическому лицу – д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Отметим, выход из режима изоляции на островах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степенно. К следующему перейдут в случае отсутствия рост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а также при соблюдении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санитарных норм.

Сахалин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депутаты и бизнесмены считают, что введение пропусков защитит регион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бизнеса поддержали решение губернатора о введении цифровых пропусков в регион для граждан без мест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Ограничительная мер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 Просьбы сахалинцев о «закрытии острова» регулярно приходят и в облдуму, и в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Единой России». Мы живем в сложное время и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защитить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от опасной болезни. Поэтому считаем, что решение, которое приня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 введении цифровых пропусков – правильное и необходимое,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Такого же мнения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еще один островной парламентар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облдумы по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Виталий Гомилевский.

– Мы должны это сделать во имя сохранения здоро-

вья жителей и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 сказал депутат. По его мнению, следующий необходимый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шаг – уведомить граждан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что приезжать на Сахалин без пропуска не имеет смыс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считает, что введение та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снизит нагрузку на бюджет области и позволит сдержив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 К нам часто поступают вопросы о том, почем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 свой счет должна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и содержать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 обсерваторах. Конечно, правильно, что и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место для изоляции – это не пускает инфекцию на остров. Но почему расходы должен нести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Понятно, что эта мера не скажется на свободе передвиж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а вот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ищут лучшей доли, пожалуй, остановит,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Депутат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йя Кириллова думает, что новая ограничительная мера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блюдению правопорядка.

– Мы часто сталкиваемся с тем, что эти люди приезжают в никуда. У них нет работы, средств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Они выпадают из правового поля, часто их образ жизни связан с нарушением закона. Думаю, с введением электронных пропусков на остров в этой сфере будет наведен порядок, – сказала Майя Кириллова.

Точку зрения депутата разделяе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Светлана Москалева.

– Новая мера будет дисциплинировать как работодателей, так и самих сотрудников, – отметила он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КФ «Сфера» Андрей Залпин считает, что новое ограничение не повлияет на выполнение задач отрасли.

– Строители стараются, работают в две смены,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ки. Персонал есть, и он весь на объектах. Если нам и потребуется пригласить людей, то это будут высококласс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для пусконаладочных работ. Для них мы предусмотрим прохождение всех процедур, необходимых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 отметил Андрей Залпин.

Напомним, 12 мая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или о новой инициативе,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 оформление цифровых пропусков. Теперь все, кто прибывает в область,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едъяв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регистрацию. Если таковой нет, то гражданин обязан оформить цифровой пропуск. Для этого перед отправкой в регион ему необходимо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Она будет содержать сведения об адресе и да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пригласившего работник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работодатель также должен уведомить о приглашении на работу. Страницу «Цифровой пропуск» разместят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формлять документы планируе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 неисполн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гражданину грозит штраф д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юридическому лицу – д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Крупную партию медицинских масок направили в школ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50 тысяч средст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луча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Холм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Томарин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ах, где возобновили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для одинадцатиклассников. Маски в виде безвозмездной помощи передал крупнейший в област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холдинг «Гидрострой». Всего компания доставила на остров миллион защитных изделий.

– С 12 мая мы перешли на очный режим работы с одиннадцатиклассниками. Ученики и педагоги рады этому событию, поскольку успели соскучиться по живому общению друг с другом. Самое главное – соблюдать меры профилактики. Один из эффективных способов защитить себя и окружающих от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 использовать медицинские маски. Менять их нужно часто, поэтому, чем больше у нас защитных изделий, тем лучше, – отмечают педагоги из второй школы Томари.

Еще 200 тысяч масок направили в «Транспортную компан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ми с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ассажиры автобусов, у которых не окажется с собой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соб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защиты.

Также маски передали в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олонтерские объединения,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Аралия», СМИ, силовые структуры и детские сад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защитных изделий от организаций и нуждающихся (пенсионеров и инвалидов) собирают по телефону: 456-343.

До конца недели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доставят еще полтора миллиона защитных масок, очки и 20 тысяч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влагонепроницаемых костюмов для больниц и лаборатор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ая Корея отчаянно борется с угрозой второй волны COVID-19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изошло то, чего так опасались власти и врачи, ослабляя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 пошла вторая волна заражений. Один из заражен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оторый не подозревал об инфицировании, побывал в нескольких столичных клубах, заразив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тителей. Власти и медики работают в авральном режиме, пытаются найти и проверить всех тех, кто оказался во внезапно возникшем в Сеуле новом очаг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Южную Корею постоянно приводят в пример другим странам, когда рассказывают о том, как следует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и добиваться перелома в ситуации. Эти успехи – стабильное незначительное число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заметное улучшение общей ситуации, а также желание поскорее вернутьс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 и позволило властям рискнуть, ввести послабление в отношении некоторых мер по борьбе с инфекцией. К сожалению, COVID-19 все-таки сумел прорвать антивирусную защиту Южной Кореи, подтвердив слова чиновников, что "расслабляться еще рано".

Новый очаг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озник в одном из известных своими клубами и ресторанами, а также прочими увеселительными заведениями, районе Сеула Итхэвоне. В ночь с 1 на 2 мая 29-летний кореец, проживающий в Ёнине (город недалеко от столицы), посетил пять клубов и один бар, а вечером 2 мая у него появились призна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Согласно рекомендациям, он провел дом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о симптомы не исчезли и в ходе проведенного теста у него было подтверждено инфицирова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ом.

Эта новость заставила службы, отвечающие за борьбу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а также власти, полностью мобилизоваться. Тесты, проведенные среди тех, с кем контактировал заболевший, подтвердили худшие предположения. Он заразил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пошла вторая волна заражений, захватив родных, близких и знакомых тех, кто побывал в тех барах.

"Полная победа казалась такой близкой, но снова объявлена пол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и новые битвы еще впереди" – так, используя привычные более для военной хроники обороты,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настроения,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воцарились среди властей, врачей, медсестер, волонтеров и вообще всех, кто так или иначе причастен к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фиксированная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в ночных клубах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го района Сеула Итхэвон вспышка COVID-19 полностью разрушила картину, когда все стали считать, что вирус практически побежден.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ласти и медики идут на всевозможные шаги, чтобы локализовать этот новый очаг, который, в худшем случае, может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полноценную вторую волну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стране, сведя почти на нет все предыдущие усилия, которыми восхвещается мир.

Сейчас идет "борьба с часами", когда надо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ыявить и проверить всех тех, кто оказался в ту злополучную неделю в клубах Итхэвона, который известен в Сеуле как место, где находится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ресторанов, увесели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а также где много иностранцев. Уже известно, что в период с 24 апреля по 6 мая в той самой пятерке ночных клубов побывали 5517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до более чем трех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ласти пока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дозвониться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не 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их на COVID-19. А это крайне важно, так как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способ, чтобы на начальной стадии ограничить возможную зон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Как уже установлен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авила, под которыми была возобновлена работа подобных заведений, далеко не все посетители клубов оставляли о себе правдивую информацию при посещении. Выходит,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потенциальных носителей инфекции, кого могли заразить, до сих пор свободно разгуливают. Посл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заявлений, обращений в СМИ, рассылки СМС-сообщений всем подряд власти Сеула заявили, что вынуждены переходить от убеждению к принуждению. Они теперь собирают всю информацию о пользователях кредитных карт, данные с камер наблюдения в клубах, а также сведения с операторов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Если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вы находились 20 и более минут в районе, где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ны ночные клубы с зафиксированными случаями заражения, то вы обязаны пройти тест на COVID-19.

Власти понимают деликатность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все "пораженные" заведения поголовно оказались гей-клубами, и об их посещении далеко не каждый

готов публично заявлять. Потому, во-первых, всем гарантирована полная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ь, во-вторых, формулировка теперь звучит не "посетитель клубов", а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был в районе, где находятся клубы, либо посетил их", в-третьих, всем таким людям тест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о. Но тем, кто по-прежнему будет отказываться проходить проверку, обещают поголовное выявление, тестирование, а затем наказание за уклонение от тестов.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есть ряд моментов, которые делают ситуацию куда более опасной, чем считалось первоначально. Дело в том, что те же камеры наблюдения могут выявить далеко не всех – в клубах обычно темно, что затрудняет определение личности. От мобильных операторов получ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хождении в районе клубов за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более 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оверка всех их займет время, даже если все они дружно явятся на тесты.

Другой осложняющий ситуацию момент: медики уверены, что вспышку спровоцировал отнюдь не только тот самый 29-летний кореец из Ёнина, который прошелся в ночь с 1 на 2 мая по всей пятерке клубов, а было скорее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или даже больше. Среди них возможно и был "супер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ь", так как количество зараженных оказалось большим и вирус "прилипал" слишком легко, что говорит о повышен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к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Следующий "тревожный звонок" – уже появились люди, которые не были в той пятерке клубов или были в другие дни, но они тоже заразились COVID-19. Список ночных клубов Итхэвона, где выявлены зараженные, пополнился еще двумя наименованиями.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инфекция распространялась из разных источников, и она продолжа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Кроме того, как минимум треть все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зараженных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й вспышки – люди, у которых не было абсолютно никаких симптомов коронавируса. Даже тот самый "первый" кореец, от посещения которого и ведут отсчет нового очага, он тоже не подозревал о наличии у него инфекции. Такие люди заражают других, ничего не подозревая, что осложняет положение.

Так что сейчас время решает все.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определится, расплзется ли COVID-19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ли его удастся локализовать. Некоторые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задача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сложнее, чем было в городе Тэгу, где среди прихожан секты "Синчхонджи" началос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охватившем в итоге всю страну. В Тэгу конечно было сложнее в том плане, что там надо было быстро проверит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ихожан, но там хотя бы были списки и телефоны всех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что упростило задачу.

Пока же цифры не такие уж и "убийственные", позволяя надеяться на благополучный исход.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ым данным на полночь 12 мая, за сутки количество зараженных COVID-19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зросло на 27 человек, доведя общее число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за все время до 10 936. Выздоровело за то же время 38 или уже 9670 человек всего, то есть победило вирус более 88 процентов зараженных.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число выявленных заражений подскочило, но все же не драматически и пока ни разу не превысило 40 человек.

Но все понимают, что эти цифры могут не отражать ре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Чтобы успокоиться, надо вычислить всех тех, кто побывал в очаге, и проверить их. Как отметили в Центре по борьб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сли удастся проверить 90 процентов из общей "группы риска", то тогда можно надеяться на локализацию очага". Это надо сделать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иначе пойдет вторая волна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Зараженные с той самой злополучной ночи уже выявлены в семи региона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На фоне этих экстренных задач эксперты теперь также задумываются, как же можно в принципе пытаться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когда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объективные благополучные показатели вирус, как оказалось, лишь затаился и ждал своего часа, когда будут ослаблены меры и люди снова начнут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В Корее искренне уже поверили, что они почти победили инфекцию, ведь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е было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внутри страны или выявлялись считанные единицы.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угроза COVID-19 будет постоянно висеть над людьми, пока все не переболеют и приобретут иммунитет или пока не будет создана эффективная вакци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우리말로 깨닫다]

관전평을 하다

세상이 점점 거칠어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情)이 메말라 간다는 말도 자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도 줄어들고 만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척도 잘 모릅니다. 사돈의 팔촌은 커녕 가까운 친척도 잘 모릅니다. 5촌이면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이는 적어졌는데 친척마저 멀어졌으니 피붙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거칠게 메말라가고 있는 걸까요? 말도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거칩니다.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는 삶이 전쟁이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일하는 직장이 전쟁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다른 회사와의 전쟁일 뿐 아니라 같은 직장의 동료와도 전쟁입니다.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막상 올라가고 나면 현기증이 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나를 흔드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터는 때로 전우가 적이 되기도 하는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학교도 전쟁터입니다. 친구들과의 경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만,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전부터 있었던 일이겠지만, 파도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왕따가 이제 새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총소리가 없으니 덜 무서워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성이 없기에 지금이 전쟁인 줄도 모르고 생활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늘 전쟁 상태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쟁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총알이 되고 우리의 입은 서로를 향한 총구가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오히려 진짜 전쟁이 덜 두렵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쟁을 겪게 된다면 무섭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표현마다 전쟁을 입에 올립니다. 마치 난리라는 말이 추임새처럼 입에 붙어있듯이 말입니다. '난리 났어, 왜 난리야, 난리도 아니야.' 처럼 말입니다. 전쟁이 난리입니다.

'관전평(觀戰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전평은 주로 스포츠 경기에 대한 평가에 쓰는 말입니다. '관전(觀戰)'이라는 말이 전쟁을 본다는 의미이니 스포츠 경기를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는 경쟁이 일어나는 현상이어서인지, 주로 싸움이나 전쟁에 비유합니다. 서로를 때리고 부수는 일부러 시작해서 폭력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초토화시키기도 하고 전멸시키기도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용어를 전부 모아놓고 관전평을 합니다. 그런데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저 멀쩡감치 서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전쟁을 보며 평가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에요.

저는 종종 제가 세상을 관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합니다. 요즘 더욱 그렇습니다. 전염병으로 세상이 뒤숭숭한데 타인의 아픔을 내 감정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구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나라의 환자 숫자를 경쟁하듯이 바라봅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환자 수가 적으면 안심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때로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힐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픈 사람, 차별받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의 가족과 친구는 왜 눈에 덜 띄었을까요? 왜 나는 구경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침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세계의 환자 수, 사망자 수를 보면서 왜 별다른 느낌이 없을까요?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앞섰다는 내용에 무덤덤하게 지나가게 될까요? 사람을 보지 않은 채 뉴스를 보고, 전쟁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Холм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получила в дар подборку книг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продолжа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ект "Книга в подарок", стартовавший еще в 2010 году. Он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полнение фондов городских и сельских библиотек новейшими книжными изданиями. Каждый год комплекты книг формируются по определенной теме.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это "Великие путешествия".

Подарочный комплект получила и Холмская центральная райо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имени Юрия Николаева. В нем представлены "Книга чудес света" Марко Поло, "Путешествие вокруг света на корабле "Нева" Юрия Лисянского, а также издания, посвящен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ям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Григорию Грумм-Гржимайло и Михаилу Певцову, крупнейшему океанографу своего времени Гавриилу Сарычеву, супружеской паре Потаниных, участвовавшей в научных экспедициях на Алтай, в Сибирь, Китай, Тибет, Монголию, и выдающемуся российскому путешественнику и исследователю Петру Козлову, совершившему шесть больших экспедиций в Монголию, Китай и Восточный Тибет.

Издания проиллюстрированы уникальным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Следуе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отличное полиграфическое исполнение. Библиотекари благодарят руководство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за такой щедрый подарок.

Новинки же ждут своих читателей на книжных полках.

사기꾼들, 모스크바 등록 전화번호로 사할린 주민들을 속이다

5월 4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찰에 신분 미확인자가 사기로 은행계좌에서 돈을 훔쳤다는 내용의 신고(보이스 피싱 신고) 두 건이 접수되었다. 피해 금액은 17만 5천 루블리에 달한다.

이 신분 미확인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은행 보안담당관이라고 소개한 걸로 확인되었다. 첫번째의 경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와 관련, 의심스러운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SMS 메시지로 받을 코드 및 은행카드번호와 CVS 코드를 신속히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가해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한 후, 피해 여성은 6만 6천 루블리의 피해를 입었다.

두번째 사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의 통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이 송금되었다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속히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그 대출금이 송금될 것이고, 피해자는 대신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될 것이라고 알렸다. 여성은 이 말을 믿고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한 후, 문자로 받은 코드를 사기꾼에게 알려 10만 9천 585루블리의 피해를 입었다.

스미르니흐 구역과 코르샤코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모든 보이스 피싱 전화는 모스크바에 등록된 가짜 번호로 이루어졌다.

Мошенники обманывают сахалинцев с московских номеров

4 мая в дежурную часть поли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ступило два заявления о том, что неизвестный путем обмана похитил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с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Общая сумма украденного составила 175 тысяч 585 рублей.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на телефоны заявителей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и представился сотрудником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банка. В первом случае потерпевшей заявили, что с ее счетом происходят подозрительные операции и для и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требуется срочно сообщить код, который придет в смс-сообщении, а также продиктовать номер карты и три цифры с оборотной стороны. Сообщив данные сведения злоумышленнику, женщина лишилась 66 тысяч рублей.

Во втором случае потерпевшей заявили, что с ее банковского счета совершен перевод крупной суммы некому гражданину, который ей незнаком. Затем неизвестный сообщил, что, если он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е возьмет кредит, то это сделает этот гражданин и потерпевшая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 всю сумму кредита. Женщина поверила аферисту и через онлайн-приложение оформила кредитный заем, после чего продиктовала коды из смс-сообщений и лишилась 109 тысяч 585 рублей.

Аналогичные ситуации произошли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и Корсакове.

Все телефонные звонки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с абонентских номер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в городе Москве.

(사할린주, 러시아 및 외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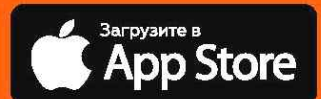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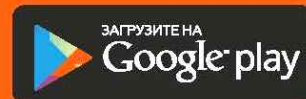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트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